미세먼지 본격 공습… 우리 집에 맞는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빅데이터로 맞춤형 관리
청호나이스 초고성능 ULPA필터
교원웰스 공기 순환시간 3배 단축
웅진그룹 초강력모터로 흡입 강화
카도 소음·진동 적고 디자인 눈길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는 봄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공기청정기에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고 있어 선택폭이 다양하다.

6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코웨이가 출시한 '멀티액션 공기청정기(AP-1516D)'는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토출구를 전면 및 상부에 배치해 거실 등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까지 빠른 공기 청정이 가능한계 장점이다.

▲파란색(좋음)▲녹색(보통)▲노랑색(나쁨)▲붉은색(매우 나쁨)으로 실내 공기의 오염 상태를 멀리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계절과 생활환경, 공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황사필터, 이중 탈취 필터, 새집 증후군 필터 등을 교체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휘바람 숨소리 ULPA 공기청정기'와 모델 테리 버츠. /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의 '휘바람-숨소리 ULPA' 공기청정기는 원자력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된 ULPA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필터는 0.1㎛ 입자에 대해서도 포집 효율이 99.99% 이상인 초고성능 필터로 꼽힌다.

유입된 공기는 프리필터→미디엄필터→ULPA필터→탈취필터를 거치면서 깨끗한 공기로 탈바꿈한다. 또 먼지센서를 통해 실내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분진을 자동으로 감지, 공기오염도를 4단계로 표시하며 자동모드 설정 시 공기 오염도에 따라 청정기의 풍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교원웰스의 '웰스 제로' 공기청정기는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H14등급의 '제로 클리어 헤파필터'를 탑재했다. 특히 H14등급은 헤파필터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공기 중 1.0㎛(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1m)의 미세먼지부터 0.3㎛의 극초미세먼지 및 유해 바이러스까지 99.995% 제거한다.

아울러 기능이 서로 다른 2개의 팬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듀얼팬'을 장착해 공기 흡입과 배출 기능을 강화, 기존 제품에 대비 집안 내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3배 이상 줄인 것도 장점이다.

웅진그룹의 웅진렌탈이 생활가전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선보인 '타워청정기'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시키는 원기둥 디자인을 채용해 360도 전 방향에서 경쟁모델 대비 1.5배 넓은 흡입 면적으로 빠르게 공기를 흡수할 수 있다. 아울러 터보팬과 초강력 모터로 빠르게 공기를 모아주고 신선한 공기를 멀리 보내준다.

이 제품은 유럽 헤파필터(HEPA Filter) 인증기관인 필텍 스위스의 성능 검증을 받은 13등급의 헤파필터를 적용해 성능 및 안전성을 보장받았다.

일본계 공기청정기 제조사인 카도(cado)도 한국 시장에서 판매를 본격화했다.

카도 공기청정기는 소니 워크맨을 만들었던 핵심 엔지니어와 도시바의 디자이너가 합작한 프리미엄 제품을 지향하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청정공기공급률'에서 최고치를 획득하며 공기정화 속도를 인정받았다.

1 웅진렌탈 '타워청정기'.
2 코웨이 멀티액션공기청정기.

11평형에 적합한 'AP-C200' 제품의 경우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베이킹 파우더 코팅으로 표면을 마무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외관상 아름다움을 더해 'IF 디자인 어워드 2017'을 수상했다. 특히 이음새가 없어 진동과 소음이 적고 몸체 옆면 흡입구가 360도로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 정화에도 효과적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운전자 안전 확보 '굿'… 자율주행은 '글쎄'

YG의 카톡 car talk

테슬라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5단계 중 2단계 수준
車 스스로 규정 속도 맞춰 주행

아직 개발이 한창인 만큼 완벽한 자율주행을 경험하긴 부족했다. 현재 최종 단계인 완벽한 자율주행을 가진 5단계가 아닌 2단계 수준이다.

미국 전기차제조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자율주행 보조시스템)'을 체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테슬라는 전기차와 자율 주행 자동차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야심 찬 목표와 아이디어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테슬라의 기업 정신이기도 하다.

테슬라는 2016년 5월 자사 전기자동차의 운전자의 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토파일럿을 선보였다. 오토파일럿은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초음파 센서로 차량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테슬라 차량의 뛰어난 연비와 유지비용 이외에도 자율주행 모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토파일럿 시연은 경기도 김포시 한국타임즈항공을 출발해 인근 도심을 주행하는 약 5㎞ 구간에서 진행됐다. 오토파일럿은 주행중 핸들 왼쪽 방향지시 아래에 위치해 있는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두번 당기면 활성화된다. 차가 없는 한산한 도로는 물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도 유용했다.

오토파일럿을 실행하자 차량이 스스로 도로 규정 속도에 맞춰 주행했다. 앞차와 차간 거리도 유지하고 굴곡진 도로를 미리 예측하고 안정적으로 빠져나갔다. 오토파일럿 작동시 운전자는 핸들을 감싸야 한다. 10초 이상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린다. 운전자가 운전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차선이 넘는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곳으로 차선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급격한 코너와 차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교차로 등 교통신호를 받아 주행해야 하는 구간에서는 국내 통신 규제로 인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이용할 수 없었다.

현재 테슬라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2단계 수준까지다. /양성운 기자 ysw@

테슬라 모델 S P100D.

기아차 "'올 뉴 K3' 3박 4일간 시승하세요"

1000명 선정 대규모 시승 이벤트

기아자동차가 '올 뉴 K3'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승이벤트에 참여할 고객 1000명을 모집한다.

기아차는 지난달 27일 출시한 올 뉴 K3를 3박 4일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천 명의 체험, 천 명의 선택' 시승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승이벤트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스마트스트림'을 최초로 적용하고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편의 사양을 장착하는 등 기존 준중형 모델을 넘어서는 상품성을 갖췄다는 자신감 아래 1000명 규모로 진행한다. 올 뉴 K3의 핵심 상품성인 연비, 스타일, 안전 3가지 주제로 5월 8일까지 총 9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000명을 선정한다.

시승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대상) 다음달 10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에서 시승을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 트롬건조기, 호주서도 '최고' 인정

LG전자가 호주에서 트롬 건조기의 뛰어난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인정받았다.

6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호주의 유력 월간 소비자잡지 초이스는 LG 트롬 건조기(모델명: TD-H802SJW)에 최고점을 부여하며 '추천 제품'으로 선정했다.

트롬 건조기는 평가 대상이 된 총 41종의 건조기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인 84점을 받았다. 기존 1위 제품의 평점은 83점이었다.

초이스는 총 52명의 전문가가 제품을 직접 테스트하고 제품을 평가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평가단은 트롬 건조기가 ▲탁월한 에너지 효율 ▲다양한 건조 코스 ▲낮은 소음 ▲짧은 건조시간 등의 강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트롬 건조기는 냉매가 순환하며 만드는 온도차를 활용해 옷감 속 수분을 제거하는 히트펌프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뜻한 냉매가 건조통 내부를 데워 옷감 속 수분을 수증기로 만들면 차가운 냉매가 수증기를 물로 만들어 외부로 배출하는 식이다.

특히 모터의 구동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이 더해져 세탁물의 양이나 고객이 선택하는 건조 코스에 따라 꼭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대우전자서비스, 애플 프리미엄센터로 선정

강남 '애플 센터' 등 총 6개 센터

대우전자(옛 동부대우전자)는 자사의 6개 서비스 센터가 애플 고객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애플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PSP)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애플에서는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모범적인 서비스 환경을 구축, 고객 만족도 및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성공한 서비스 센터를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로 선정하고 있다.

대우전자서비스는 지속적인 고객가치 혁신 노력으로 업계 최고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강남, 홍대, 전주, 사상, 대구, 목포센터 등 총 6개 센터가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로 선정됐다.

한편 대우전자서비스는 대우전자 제품뿐만 아니라 애플, 일렉트로룩스, 테팔 등 글로벌 가전, IT 업체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